즉시 배포용: 2022년 10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학자금 대출 잔여금에 대한 추가 비용 과금 관행 중단 법안에 서명

법안(S.7862B/A.10261)에 따라 학자금 대출 잔여금에 대한 22% 비용 부과 관행 중단

학생의 대출 상환 독촉을 위한 징벌적 법조항 폐지

Kathy Hochul 주지사는 주정부에 학자금 대출 잔여금이 남아 있는 경우 대출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던 관행을 중단하는 법안(S.7862B/A.10261)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이 마련되기 전, 남아 있는 대출 잔여금에 대해 주법에 따라 22%의 비용이 부과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학생들이 대출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에 제 행정부는 주목했습니다.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고등교육 진학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학생들이 빚의 부담 없이 졸업하여 더이상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빚부담에 시달리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안(S.7862B/A.10261)에 따라 주 재무법에 주정부 기관이 교육 대출금 잔여금에 대한 22%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이 추가됩니다. 다양한 주정부 기관은 뉴욕주로부터 대출한 교육비를 징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환받을 수 없을 경우, 이러한 채무는 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산하 민사추심부(Civil Recoveries Bureau)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법안에 서명하기 전, 주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교육 채무 상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 잔여금에 최대 22%의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출 총액을 크게 상승시켜 학생 대출자의 부담을 매우 크게 만들었습니다.

Jamaal T. Baile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은 양질의 교육을 적정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학생들은 빚 때문에 고등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적정가격으로 더욱 많은 뉴욕 주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잔여금에 대한 22% 비용 징수 관행을 철폐하는 법안 S7862를 지지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자금 대출에 추가 비용이 더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이미 대규모 빚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긴급한 문제에 귀를 기울여 학자금 대출 위기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신 Kathy Hochul 주지사, Andrea Stewart-Cousins 상원 여당 대표, Carl Heastie 하원 의장, 하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해주신 Kenneth Zebrowski 하원의원, 법안을 지지해주신 상하원의 모든 동료들께 감사드립니다."

Kenneth Zebrowski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잔액에 대한 현행 추가 비용 22%는 이미 상환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SUNY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입니다. 연방 정부가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에 나서는 가운데, 뉴욕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입니다. 법안에 서명하여 학생 대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Letitia James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빚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번 법안은 부정의를 해결하며, 또한 뉴욕 주민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이번 법안을 시행하게 되어 기쁘며, Hochul 주지사와 법안 발의자 등 조치를 취해주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